

2017 년 8 월 6 일 “찾아오신 예수님(36) 예수님 영광을 나타내는 성령”(요 15:26-27; 16:12-15)

오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16:14) 성령의 증언과 제자들의 증언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성령의 증언

15:26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증언” - 진실을 입증하고 드러낸다는 뜻. 이런 법정 용어를 쓴 이유는 빌라도 법정의 결과로 예수님의 죽음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진실을 참 하늘 법정의 권위를 가진 성령님의 권위로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14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증언 자격이 있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과 동질의 분으로서 당신을 완벽하게 참으로 아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분 다 ‘보혜사’로서 동질의 하나님)

성령님의 증언은,

14 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영광을 나타내다”(doxazo - 동사형) = 칭찬, 존중하다, 경의를 표하다, 영예를 주다.

‘영광’(doxa - 명사형) - 좋은 평판, 명성, 탁월함, 빛, 광휘의 뜻을 가짐.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존중하며 높여준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본질적 성품, 그분의 삶의 목적, 그것을 이루시는 삶의 방식, 그리고 죽음으로 이루신 성취가 얼마나 본질적이고 중대한지를 밝혀준다는 뜻입니다. 줄여서 성령님은 그분의 존재와 행위(삶과 죽음)의 참 의미를 밝히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성령은 과대 포장하거나 부풀리지 않습니다. 또는 좋은 말(인간이 판단하고 설득될 수 있는)만 늘어놓지 않으십니다. 또 예수님의 삶과 죽음으로 성취하신 결과를 자기 생각/해석으로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밝혀 내시는 분입니다(13 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심’).

신약 - 영광이라는 단어는 폭넓게 사용(부활, 승천, 재림 등). 그러나 요한은 그분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집중 조명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상 최고 권세를 가진 로마법정의 사형 선고가 하늘 법정의 판결과는 질과 내용과 차원과 수준이 다르다는 의미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령님은 비참함을 넘어서는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에 우리 시선을 돌리도록 합니다.

하늘 법정의 선언: 예수님은 참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참 인간으로 순종하셨고, 그 순종의 결과로 죽으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복음의 세상이 임하게 하셨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15 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성령)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세 분이 어떤 무엇을 함께 공유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공유의 내용은 구원의 목표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십자가에서 보이실 신적 자원들 -사랑, 은혜, 신실함, 인내, 지혜 등- 그리고 장래에 모두 함께 즐거워 할 신적 가치들(선물, 유업)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성령님 외에 또 한 증인을 세우십니다.

[2] 제자들의 증언

15: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16:14, 15 똑 같은 말씀 반복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제자들이 갑자기 똑똑해지고, 능력이 많아져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데, 하나는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그분을 알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신 후로 그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선명해져서 그들도 나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쏟아내며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음의 생명의 새로운 세계를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증언의 능력은 개인적 자질에 있지 않고,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사역에 기초합니다.

그러면 오늘 날 우리가 이 동일한 성령님을 받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의식과 열정이 내 안에서 선명해집니다. 성령 받으면 내 상황이 좋아지고, 능력이 생기고, 또 남들은 고통 당해도 혼자 평안을 누린다고 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라는 존재와 그분의 사역과 열매에 대해 알고 싶고 나누고 전하고 싶게 됩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은 오래 신앙 생활을 해도 예수님께 끌리지 못하고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는 성도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격의 다양한 모습과 감정을 가진 분임을 알 지 못합니다.

성경 안의 예수님은 웃고, 우시며, 화내고,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늘 제자들 말에 경청하시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도행전을 보면 속임도, 모욕도 당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애정과 따뜻함, 섬세함도 있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참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비성경적인 의식과 문화가 드러나게 됩니다.

<맺음>

성령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갖게 해달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길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참 역사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이전에 가졌던 이해와 오늘 본문을 대하며 새롭게 발견한 것에 비추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영광에 대한 구체적인 면모들을 열거해 봅시다.
2.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씩 말씀해 보세요.
3. 요 14-16 장(14:16-17, 26; 15:26-27; 16:7-15 이상 네 군데)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무엇을 중점에 두고 계시는지에 대해 말씀해 봅시다. 성령에 대한 이해를 잘 도와주는 나눔이 될 것입니다.